

중장비매매

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과 중장비 매매의 영향: 안전 장치 의무화와 시세 변화 장비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

중장비 관련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매매 시장에도 새로운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법을 모르고 장비를 매매했다가는 큰 과태료를 당하거나 명의 변경이 안 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
1. 정기 검사 미이수 장비의 매매 및 운행 금지

법령에 의거하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는 유통 자체가 제한되며, 차주에게 강력한 제재가 내려집니다.

· 검사 [태양중기 중장비매매사이트](#) 이력 체크: 장비를 사기 전에 반드시 등록증 뒷면의 검사 유효기간을 체크하십시오.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판매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후 인도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.

2.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와 중고가 형성

사망 사고 줄이기 위해 굴삭기 등 후방 영상 장치나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
· 안전 장치 점검: 최신 안전 사양이 이미 장착된 장비는 나중에 따로 설치비와 수고를 줄여주므로 가격 책정 시 좋은 조건이 됩니다.

3. 폐기 대상 장비와 매연 저감 장치(DPF) 이슈

노후 경유차와 마찬가지로 연식 있는 중기도 특정 환경 지역 진입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· 저감 장치 확인: 지원을 받아 DPF를 달았는지, 장착했다면 남은 의무 사용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매매 상담 시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.

규정은 까다롭지만 법을 준수하는 매매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 정식 유통 업체는 이러한 법적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걱정 없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검사와 대행해 드립니다. 안전하고 합법적인 중장비 매매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.

SINCE 1997

탁월함, 신뢰, 그리고 특별한 경험!

**태양중기를
소개합니다**

TREYANG

태양중기매매상사

중장비 마켓